

# 美법무부, 엠스타인 공개 파일 지웠던 트럼프 사진 복원

“피해자 보호 위해 사진 일시 삭제, 검토한 것…미포함 확인”

트럼프 관련 모든 파일 공개 약속…클린턴 등 추가 수사 여지도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엠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애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으나,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제공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액스(X·옛 트위터)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재공개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

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엠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엠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엠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0장의 자료를 슬그머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짧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엠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엠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은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팸 본디법무부장관은 사건 파일 공개를 약속하며, 엠스타인의 ‘성매매 접대 리스트’를 보유한 것처럼 말했다. 같은 달 백악관은 우파 인플루언서들에게 ‘엠스타인 파일 1단계’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전달했으나, 이미 알려진 정보의 재탕에 불과했다. 이후 본디 장관은 더 이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11월 의회는 엠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공개된 배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본디 장관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재공개한 엠스타인 관련 파일 속 트럼프 대통령 사진. 왼쪽 하단 서랍 속 사진에 짧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엠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미 법무부 공개 파일 캡처=연합뉴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 중인 조니 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마다가스카르 인근 인도양 상공 265마일(약 426km)을 공전 중인 국제우주정거장(ISS)의 큐브라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제공=연합뉴스

## ‘홍콩대 학생회 추진’ 화재참사 추모행사 무산

최소 1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콩대 학생들이 추진한 추모 행사가 대학 측의 장소 대관 거부로 취소됐다.

2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대 소속 8개 단과대학 학생회 연합회는 화재참사 추모행사를 이달 중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장소 대관을 거절해 행사가

취소됐다고 홍콩대 학생회 매체인 ‘학원’(學院)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대 대변인은 명보에 “홍콩 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재난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학생 조직의 장소 신청과 관련해 학생 대표 측과 소통해왔으며 기존 지원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아세안 외교장관들 오늘 특별회의…태국·캄보디아 휴전 논의

### 말레이시아 조치 방안 검토

### 양국, 이달 충돌 후 첫 대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의장국 말레이시아에서 모여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찾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외교장관들은 이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 다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과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무력 충돌한 이후 양국 정부 관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하산 자국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으로 양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이번 회

의가 양국이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차이점을 해결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면서 “(양국 총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니콘셋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태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지뢰 제거 작업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中, 인민해방군-무장경찰 첫 모의전쟁훈련…J-16 vs 라팔 교전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국영 CCTV 등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하난성 쉬창에서 20개 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 공군 주력 J-16 전투기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의 모의 교전 훈련이 진행됐으며, 다른 지역에서 육군-해군 잠수함 부대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됐다.

이들 모의 전쟁 훈련에 준군사 조직으로 내부 보안·테러 대응·재난 구호·범죄수사 및 해상 권리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민무장경찰이 참여했

는가 하면, 중국군이 극비사항인 군사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육군·해군·공군·로켓군·전략원군 등으로 짜였다.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은 모두 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이 신문은 공개된 쉬창 훈련 영상에 중국군 주력 45세대 전투기 J-16 87기와 라팔 전투기 6기가 모의 교전하는 상황이 담겼다고 전했다.

중국 해안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J-16 다목적 전투기와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 조합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때 ‘최강의 돌파 조합’으로 평가받는다고 SCMP는 보도했다.

외교가에선 이 같은 중국의 모의전쟁훈련 공개는 근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갈등·대립보다는 화해에 방점을 둔 미중 관계를 표방하는 속에서 입지를 키운 중국이 디카이자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대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실제 전쟁 상황을 현실적으로 모방한 전략 시뮬레이션인 모의 전쟁훈련은 전술·전략적 의사 결정 능력을 훈련하고,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며, 미래 분쟁의 추세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5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